22과. 문형 (7)

[예문 만들기]

1. { -는/-(으)ㄴ/-(으)ㄹ 것 같다 }

시험을 잘 본 (not 봤는) 것 같아요.

……

……

……

2. { -는/-(으)ㄴ/-(으)ㄹ Noun}

어제 만든 김밥이 너무 예쁘고 맛있었어요.

……

……

……

3. {-(으)ㄴ 지 (시간) 되다 }

한국음식 먹은 지 벌써 두 달쯤 됐어요.

……

……

……

[활용연습]-는/-(으)ㄴ/-(으)ㄹ 것 같아요.

바쁘다			
어렵다			
듣다			
만들다			
오르다			
받다			
낫다			
잊어버리다			
재미있다			

22과. 문형 (7)

[말하고 쓰기]

사진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보세요.
예: 사진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.
지금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를 만난 지 3 년 됐어요.
고등학교 때 같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는데……

사진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

……..

22과. 문형 (7)

-(아/어)~	-(으)~	자음 (consonant)
-(았/었)으면 -(았/었)을텐데 -(아/어) 버리다 -(아/어) 두다	-(으)ㄹ 겸 -(으)ㄹ 걸 그랬다 -(으)ㄹ 뿐만 아니라 -(으)ㄹ까봐 -(으)ㄹ수록	-느라고 -는 둥 마는 둥 -는 바람에 -다가 -고 말다

예문:

(1)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쇼핑도 할 겸 뉴욕에 다녀왔다.

(2) 어젯밤에 알람을 켜 놓았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을텐데....
늦게 일어나서 오늘 수업에 늦고 말았다.

(3)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내일 또 늦을까봐 알람시계를 세 개를 맞춰 놓았다.

(4) 숙제를 미리 다 해 두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좋다.

(5) 요즘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, 어제도 친구들하고 같이 밤늦게 피자를 먹고 말았다.

(6) 요즘 공부할 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책도 읽는 둥 마는 둥...왜 이러지?

(7) 점심 먹다가 실수로 오렌지 쥬스를 쏟는 바람에 가방이 다 젖어 버렸다.

(8) 가방을 식탁 밑에 둘 걸 그랬다.

(9) 잠은 잘수록 더 자고 싶어진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.

(10) 동아리 활동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다.

22과. 문형 (7)

[예문 만들기 연습] 친구하고 같이 카드에 적힌 문형을 하나 씩 보면서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.

(1)_____

(1)_____

(2)_____

(3)_____

(4)_____

(5)_____

(6)_____

(7)_____